

1968년도 제1차 지방대회모습

1. 애기의 꽃을 피우는 각 지역 회원들
 2. 개종과 신앙에 투고를 열망하는 회원들
 3. 남부 지방부 대외 장소인 부산지부 입구
 4. 남부 지방부의 직원들
 5. 새로이 지지된 중앙 지방부장단
 6. 역원을 지지하는 중앙 지방부 회원들
 7. 추운 날씨임에도 많은 회원들이 참가 하였다.
 8. 말씀하는 선교부장
 9. 김복사도님을 반기는 회원들
 10. 말씀하는 김복사도님
 11. 일문 유치원의 기록을 보시는 사도님 내외



회원 배가 운동의 해인 1968년도 첫 지방대회가 지난 2월 17, 18일과 24, 25일에 부산과 서울에서 각각 있었다.

그간 한국 선교부 한국 지방부의 지시를 받던 경상도 전라도 지역의 성도들은 본부에서 멀리 떨어져 여러가지 어려움을 받아야 했었으나 이번에 남부 지방부가 탄생되므로서 경상도, 전라도의 지부와 지역은 남부 지방부장단의 지시를 받게 된 것이다. 탄생된 남부 지방부는 대구, 부산, 동구, 광주, 전주등지의 한국 성도들의 모임을 관장하게 된다.

17일 3시 30분 주일학교, 상향회의 전체역원회가 부산 지부에서 열리고 있는 동안 남부지역의 회원들은 오랫동안 만남을 기뻐하면서 6시 30분부터 시작되는 “가족의 밤”을 기다렸다.

대회를 위해 집을 떠나올 때 기도했느냐면서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던 우렁찬 목소리는 천정이 얇은 부산지부 건물로 진동했었다. 말씀에 나선 배 창근 형제는 “너무도 교회 일에 열심인 아버지가 직장의 일에 소홀해지는 것을 보고 무척 걱정 했었으나, 그럴수록 우리 가정은 음식, 의복 그 밖에 여러가지들을 더욱 주셨던 것을 알게 되면서, 나는 우리 가족이 축복 받은 가족이라고 생각했다”면서 가족이 모두 같은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고마움을 간증해주었다.

이어서 로렌즈 스노우 제5대 대관장님의 체험을 “하늘의 문” 이라고 이름붙여서 35년만의 가뭄을 이겨내기 위해서 교회총관리 역원들을 이끌고 성 조지로 가셨던 신앙의 기록을 감명 깊게 감상한 성도들은 너무도 벅찬 감명에 일어서 줄을 몰랐다.

다음 날인 14일 9시 30분부터 있었던 제1총회에서는 이호남 장로에 의해서 서울과 인천 대전을 제외한 곳을 남부 지방부라 이름하고 지방부장에 부산 지부장으로서 있는 배 영천 장로를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그의 보좌로서는 애쉬워즈(부산 지부 선교사), 도 길희(대구지부) 장로와 서기에 서원장로가 임명 되었다. 또한 평의원으로 금 바울(부산), 홍 범식(전주), 나 병선(동구) 형제들과 주일학교 회장에 배 성수(대구), 청남 상향회장에 박 주인(전주), 청년 상향회장에 박 묘자(동구) 자매가 각각 지지되었다.

지방부행사에 나선 구 중식 형제는 21세 이하 아론 신권회 상을(상장과 부상) 수여 했다.

말씀에 나선 배 영천 지방부장은 화살의 비유로서 서로의 신앙을 독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식하는 성도가 되지 말고, 하나님에게 합당한 것이라면 원손이 모르게 은밀

한 가운데 하는 성도가 되자고 했었다.

차 중환 중앙 지방부장은 우리의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북부 지방부가 생겨지도록 기도할 것을 제창했다.

말씀에 나선 선교부장님은 이호남 형제의 통역으로 “고난과 십일조의 축복”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하셨다. “물론의 개척자들은 지금 우리의 삶에는 비교가 되지 않는 고난을 겪었으나 그들은 오늘의 영광의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바쁘게 일하고, 계명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에 봉사하며, 십일조를 바치고, 역원을 지지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 이라면서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자고 말씀했다.

제2총회는 배 영천 형제의 사회로 시작되었는데 이자리에서는 동구지부의 박 문정 형제와 방 춘성 형제가 대신권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지지 되었다. 이 호남 형제는 말씀에서 “나는 동부지부의 좌측 3번째 의자에 앉기를 좋아하는데, 그것은 학교 강의를 하루 쉬면서 그 곳에 씨멘트를 부었기 때문이라”면서 봉사의 기쁨을 간증해 주었다.

남부 지방대회에는 연 600여 성도가 참석했었다.

한편 김볼 사도의 방한으로 뒤로 밀우어진 서울의 지방대회는 말씀을 들을 수있는 기쁨으로 남부 지방부와 분리된 중앙 지방부로서의 섭섭함을 나눌사이도 없이 보내 졌다. 24일과 25일에 있었던 중앙지방부의 대회는 24일 가족의 밤으로부터 시작 되었다.

대전과 인천 그리고 서울의 8개 지부를 포함한 10개 지부의 회원들은 “제가 제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 집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의 방에서 가족이 함께 모여 무릎 꿇고 기도하던 것”이라는 마호니 장로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는 복음이 있는 가정에서 자랐던 자기가 얼마만큼의 행복을 느끼며 살아왔는가를 간증해 주었다. 이어서 “하늘의 문”을 감상한 서울의 성도들은 25일을 맞았다. 제1총회는 서울의 500여 성도의 성황리에 개최 되었다. 부산에서와 마찬가지로 교회 총관리역원—대관장단, 12사도 정원회, 관리 감독단, 축복사, 70인 정원회 회장단—에 대한 지지가 있었고, 선교부장단—선교부장 배 일문, 제1보좌 이 호남, 서기 배 도선—중앙 지방부장단—지방부장 차 중환, 제1보좌 박재암, 제2보좌 민 경욱, 서기 구 중식, 황 중섭—평의원—대신권 김 석모, 소 신권 천낙서, 주일학교 김복경, 상향회 송 태섭, 시간 선교사 한 인상, 계보 이 민관—형제들과 주일학교, 상향회, 상호

부조회, 계보위원회 역원에 대한 지지가 있었다. 특히 중앙 지방부 대회에서는 6명의 형제가 소신권에서 대신권을 받았는데 그들은 성복의 장 기호, 서 재후, 동부의 진원선, 홍 무광, 동대문의 고 천석, 영 등포의 김 명웅 형제들이다.

제2총회는 오후 4시 30분에 귀국하신 김불사도님을 모시고 6시30분부터 차 종환 형제의 사회로 있었다. “말일에 예언자 주심”을 감사하는 찬송속에 입장하신 김불사도님 내외는 누구에도 불구하고 연령과는 관계없는 건강을 보여주셔서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산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는 이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과 대구와 광주와 전주에서 모이고, 피부가 서로 다른 외국인 성도들로 메워져 영적인 말씀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시고서 한국보다 먼저 선교된 일본에 앞서 이 땅에 신전이 세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고무해 주셨다.

“오랜동안 바라고 바라던 꿈이 실현 되는 기쁨속에 꼭 오고 싶었던 곳”이었다는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먼 곳에서 이곳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사랑에 감사 했었다.

제2총회는 8시에 막을 내려 서울에서만도 연 1,500여 성도가 모이는 “회원 배가 운동의 해”의 첫 지방 대회를 끝냈다.

한편 김불사도님은 26일 선교사를 위한 모임을 주관하시고, 저녁에는 한국 지도자를 위한 노변의 모임에서 말씀해 주셨으며, 27일 서울의 고궁과 몇 곳의 백화점을 보신 후, 2시30분 한국의 일정을 마치시고 귀국하셨다.

김불사도님의 말씀을 간추려 옮깁니다.

오늘날 지상에는 300만명의 물몬 성도들이 살고 있는데 이것은 50여년전 500여명에 불과했던 칼리포니아에 30만명

에 100여 스테이크가 세워진 것으로 보아서도 다니엘의 꿈의 예언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학자들은 인공위성을 만들고 우주인을 탄생시키고하지만 복음이 부정직하고, 부도덕한 사람의 생애를 바꿔놓는 것에 비할 때 그것은 그리 큰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보고 싶거든 참된 교리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보십시오. 바울은 나쁜 사람으로 알려졌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마음을 바꿔놓아 침례를 받고나자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자가 되었고 그의 생애까지도 바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수천 수만명의 생애를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이곳에 스테이크가 생긴다면 많은 사람의 총관리 역원이 이곳을 방문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총본부에서 베푸는 특전으로 훈련을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초청되는 사람들은 교환 장치로서 자기 나라 말로 설교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건물을 짓기전에 청사진을 만들지 않는 사람이 없듯이 오랜 시일을 두고 꾸준히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우리의 생을 멈추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살이라고하는 것은 하나의 충격이며, 좌절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영원을 두고 자기 자신을 괴롭힐 문제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선한 상태이거나, 악한 상태이거나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원한다면 그것에 버금가는 커다란 희생이 뒤따라야 합니다.”

“저는 제가 죽기전에 대판장단이나 사도정원회에 한국 사람이 들어온다고 해서 놀라지 않겠습니다.”

성도의 벗 퀴즈

그간 11회에 걸쳐 출제되고, 9회에 걸쳐 정답과 당첨자가 발표되었던 성도의 벗 퀴즈는 새로운 체제의 성도의 벗이 나오게 됨에 따라 퀴즈란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교리 혹은 상식문제들을 실었던 퀴즈에 때로는 다섯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의 적은 응모가 있기도 했읍니다만, 회가 거듭할 수록 많아지는 응모에 즐거운 비명을 울려야 했습니다. 특히 2월호에 출제된 제11회분의 퀴즈는 많은 선교사가 참여해 주셔서 특히 즐거웠읍니다.

그동안 4분이 5회 당첨되어서 1년분의 성도의 벗을 우송받고 계시며, 몇분은 4회까지 당첨이 되었으나 먼저 말씀드린 사정으로 해서 부득이 문을 닫아야 됨을 섭섭하게 생각하면서 퀴즈에 당첨되었던 분들에게 3월호 성도의 벗을 우송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안을 바랍니다. (편집실)

성도의 벗을 받을 분들

정 단	차 미 선	차 미 례	양 해 윤	이 봉 재
홍 순 모	이 호 회	김 일 수	김 문 자	



일문 유치원 졸업생을 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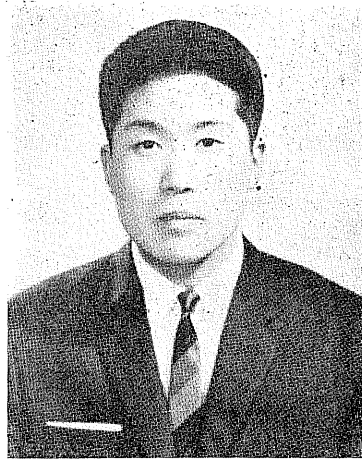
선교부 산하의 일문 유치원이 지난 2월 15일 오후 2시 그 첫 졸업생을 내었다.

정원인 38명으로 작년 2월 2일 개원한 일문 유치원은(동부지부) 그간 얼마 되지 않은 연혁을 갖고도 전국 어린이 세발 자전거 대회, 전국 왕자 대회, 전국 유치원 어린이 미술 대회등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그 교수법을 크게 인정받고 있었다.

이사장인 배 일문 선교부장과 이 호남, 차 중환 형제 등이 참석했던 이날의 졸업식에는 이 호중등 38명의 어린이가 졸업했는데 문 명화등 8명의 어린이가 우수상을 받았으며, 김 경환등 5명의 어린이가 저축상을 받았다.

선교부장은 이날 말씀에서 “저의 어머니는 제가 어려서 이것 저것을 배우게 되었을 때부터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말하면서 부모님의 모범이 좋은 아이가 될것을 바라지는 말라고 제언했다.

이날 어린이들은 여러 절차를 기다리는 동안 흠없는 귀여운 작난을 해서 참석한 많은 부모들의 웃음을 자아내게 했었다.



김 광덕 형제 선교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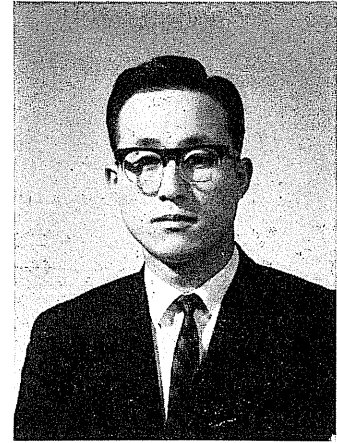
삼청지부는 2월11일 김 광덕 형제를 선교사로 떠나 보냈다.

김장로는 7년전 침례를 받았으며 지난 1월에 제대를 했었다.

그는 농구에 뛰어난 소질을 갖고 있어 삼청지부 농구팀의 주력을 이루었었으며 작년에는 선교부 농구팀의 일원으로 대구등지를 원정하여 큰 활약을 보였었다.

「겸손하고 온유한 청년」으로서 지부에서 상향회등 여러 조직에서 활동을 해 왔었다.

팔마 선교부장은 「훌륭한 선교사가 되기위해 모든 세속적인 것을 잊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었다. 그는 광주지부에서 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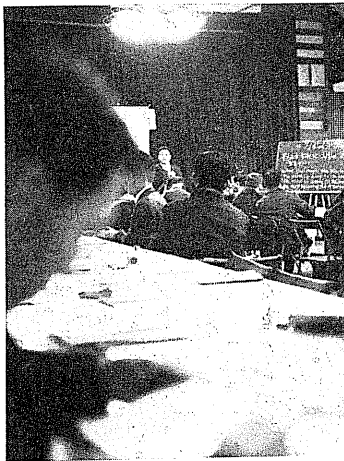
윤 치근 형제 선교사로

동대문 지부 소속의 윤 치근 형제가 3월 3일 선교사로 떠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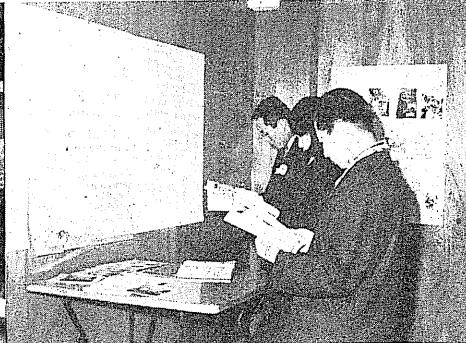
윤 일한씨와 이 용자 여사의 장남인 그는 선교사 부름을 받기전까지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연구를 해왔다.

성격이 차분하고, 이론이 정연해서 평소 많은 사람들에게 지적인 모습을 보여 왔었던 그는 동대문지부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해 왔었다.

대구지부에서 봉사하기로 계획된 그는 대구의 풍물과 그외의 여러가지들을 연구 조사하느라 열심이다.



선교부에서 진행된 집회의 모습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번역 출판에 관한 그간의 자료들을 보고 있다.



그린 파크에서 있었던 새로운 보고서 양식에 대한 설명을 태 일로, 서 원 장로가 설명하고 있다.

지도자 대회 갖다.

3월 1일과 2일에 걸쳐 계획된 바 있었던 중앙 지방부 지도자 대회가 선교본부와 크린 파크에서 있었다.

선교부에 의해서 계획된 이 모임은 연구의원으로 의측받은 여러 의원들이 최종안을 토론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이 모임은 신학과 지식을 강화하고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키며 주님께 대한 봉사를 더욱 모색하기 위해서 준비되었던 것이었다.

선교부장님은 환영사에서 “지도자가 모르고서 어떻게 지도 할 수 있겠느냐”면서 지식을 쌓고 훈련으로 자질을 기를 것을 당부 했었다. 선교부 탄생이래 3회째의 이 지도자 모임의 대상은 지방부 보조 조직의 회장단과 각 지부장단이었다. 한편 남부 지방부의 지도자 대회는 진해에서 4월 5일과 6일로 계획되어있다.

성도의 벗의 체제를 바꾸면서

먼저 적극적으로 편달을 해주셔서 여러분의 성도의 벗으로 발전 시켜주신 독자 여러분에게 감사하면서 성도의 벗의 체제가 바뀌어서 나오게 된 경위를 말씀드립니다.

그간 성도의 벗은 1964년 5월에 창간호를 낸 후 여러 구비를 거치면서 1968년 3월호로서 4년이 되었으며 통권 32권째가 되었습니다.

선교부내의 읍셀 기체에 의해서 인쇄 되어온 성도의 벗은 1967년 5월호부터 물문경을 인쇄했던 보진제 인쇄소에서 인쇄를 해 왔었습니다. 외부 인쇄소에 성도의 벗을 맡게된 이유는 한글 타이프는 인쇄소 활자의 조합과는 다른 짜임새여서—영어 타자기는 모음과 자음의 크기가 같습시다만, 한글은 그것을 서로 맞춰서 글자를 이루기 때문에—체제를 바꾸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성도의 벗은 1,000부를 만들도록 계약되었습시다만, 많은 수의 성도의 벗이 소화되지 못해서 800부를 만들어 왔었습니다. 그것은 부수가 배가 될수록 단가가 훨씬 내려가는 인쇄상의 문제에는 역행한 것이었습시다만, 어쩔수 없이 부수를 줄여야 했었습니다. 그간 종이의 질도 여러번 바꿔 보았습니다. 처음엔 모조지를 가지고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나 종이는 깨끗 합시다만, 뒷페이지에 인쇄된 활자나 그림이 보이는 종이를 쓰기 보다는, 활자 효과라도 좋은 종이를 써도 보았고, 컷과 사진이 충실치 못하여 다시 다른 것으로 바꾸기에 이르렀었습니다. 같은 수의 페이지라고 하더라도 책이 얇아 보이는 단점은 있었습시다만, 효과가 좋았습니다. 품위 있는 책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종이에 인쇄를 한다는 것은 판매되는 책의 수로 보아서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간 책정된 책의 가격은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1,000부를 30원씩에 판매한다 하여도 반액도 안되는 것이었습시다만, 이것을 통해서 신앙의 발전을 모색

해 보자는 선교부장님의 결심은 1년구독료 12권에 250원을 받고, 집에까지 우송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장기 구독료는 개별 구독료 보다 152원이 싼 것이었습니다. 사실 책정된 1년구독료는 일본의 530원, 중국의 816원 비해서 파격적인 것이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새로운 체제의 성도의 벗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3월호의 내용은 교회 관리 감독단이 주관하는 번역 출판 위원회에서 선택한 원고에 의해서 세계 300만 말일 성도가 17개국어로 83개 선교부가 동시에 구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체제가 바뀌게 된 근본 이유는 “그 날이 이르면 모든 백성이 제각기 자기가 쓰는 언어와 방언으로 완전한 복음을 듣게 되리라”(교리와성약 90편 11절)는 말씀에 근거한 것으로서 표지는 항상 천연색으로 하게 되었으며 아직 회원 수가 그리 많지 않은 우리나라로서는 특별한 혜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책 값은 1년 장기 구독료(우송료 포함) 450원, 매권당 50원으로 책정되었으며 각지부에 할당되는 수는 주일학교 기록에 근거한 것으로서 장기 구독자는 그 수에서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분명히 밝힐것은 성도의 벗의 대금이 누적된 지부는 분명히 밝혀서 앞으로의 일에 착오가 없게 하여 주십시오. 대금은 성도의 벗 편집실을 통해서 교회본부에까지 보고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부 책임자의 임명과 활용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장기구독자의 경우 직접 애독자의 맥으로 발송하겠습니다. 또한 일정한 숫자를 책정하여 그것을 상회할 때 그 지부 소속의 모든 애독자에게 혜택을 드리는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책의 체제가 바뀔에 따라 투고는 각 지부의 지부 뉴스와 성도의 개인적인 경사에 국한 됩니다. 활용하여 주십시오. 원고마감은 매 월말입니다.

많은분이 투고 할 수 없는 점은 대단히 섭섭한 일이오나, 온 세계가 같은 내용과 체제의 책을 동시에 읽는다는 것에 대하여 한국 선교부장님과 함께 무척 긍지를 느끼는 바입니다. (편집인)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선교부 예하 각 지부 주소

선교본부 청운지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전화 ㉓ 3995
동부지부 동대문지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134의 19	전화 ㉒ 1005
삼청지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5번지	전화 ㉒ 3596
서부지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58의 1	전화 ㉓ 1208
성북지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88의 13	전화 ㉒ 0744
신촌지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77의 13	전화 ㉓ 4279
영등포지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량진동 54의 15	
인천지역	인천시 답동 37번지 송도 중 고등학교 옆	전화 ㉒ 9852
대전지역	대전시 대흥동 440의 1	전화 ㉒ 6273
대구지부	대주시 삼덕동 2가 24번지	전화 ㉒ 6659
부산지부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3가 95번지	전화 ㉔ 7071
동구지부	부산시 동구 수정동 658의 10	
광주지부	광주시 충장로 4가 34번지	전화 ㉒ 2692
전주지역	전주시 경원동 1가 58번지	전화 2819

도 서 안 내

일 반 용

물문경	150원
물문경 (가족표지)	1,200원
물문이란	100원
효과있는 가르침을 위한 제언	50원
찬송가	50원

주 일 학 교 용

그리스도의 생애	100원
기이한 업적 (상권)	50원
기이한 업적 (하권)	50원
말일성도란	100원
복음의 실천	100원
생활을 위한 그리스도의 이상	100원
생활에서 본 회복된 교회의 원리	150원
성전중의 지도자	100원
주님의 멍세이지	100원
주님의 멍세이지 (교사 보조 교재)	100원
회복된 교회의 역사	150원
이야기로 엮은 구약 성서	150원

상 향 회 용

강력한 지도력을 통한 인격 강화	20원
봉사 이삭줍기반 공과	100원
상향회 역원 지도서	50원
상향회 선교부 지도서	50원
선택의 밤 (봉이반 공과)	50원
장미반 공과	150원
지도 원리	50원

신 권 회 용

아론 신권회 지침서	20원
인간과 하나님	100원
집사 교문 지도서	150원
회복된 성교회	100원

유년주일학교용

우리의 종교생활 (상)	100원
우리의 종교생활 (하)	100원
주안에서 자라남	150원
복음안에서 자라는 어린이	150원
어린이 찬송가	100원

※ 도서는 선교부 판매부에서 구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각 지부의 지부
장에게 선금을 주시면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